

아라비안 사이언스의 메카 '카타르' 성장동력을 **자원**에서 **과학**으로

글 임소형 한국일보 기자 precare@hk.co.kr



▶ 한낮의 도하 시내 쇼핑몰. 바깥은 섭씨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살인적인 더위지만 건물 내부는 추울 정도로 냉방을 가동한다.

솔직히 카타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 채 떠났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 옆의 작은 나라, 천연가스가 많이 난다는 나라,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다닌다는 나라, 남자들이 아내를 서너 명씩 들인다는 나라, 굉장히 덥다는 나라... 출국 전 알고 있던 카타르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뿐이었다.

하지만 이걸 빙산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지에서 본 카타르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동행한 한국 과학기자단을 긴장시킨 건 무엇보다 그 부자나라가 과학과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과학계가 미래에 경쟁해야 할 상대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어쩌면 중동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도하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카타르의 수도 도하 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쯤. 대낮처럼 환했고 그야말로 폭폭 찼다. 우리나라 한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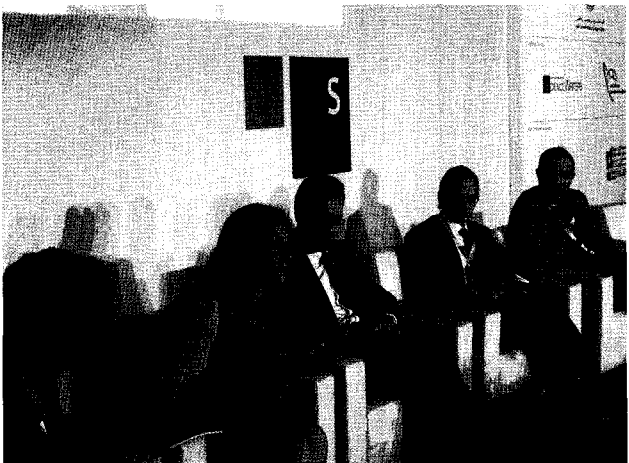
오후에 느끼는 정도의 더위였다. 새벽이 그 정도니 한낮엔 어떨까 싶었다. 섭씨 50도 가까이 예사로 올라간단다. 차로 진입한 도하 시내의 한마디로 공사판이었다. 한 블록이 멀다 하고 새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고, 곳곳에 아파트 십수 층 높이 만한 타워크레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이 나라가 뭔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감'이 왔다.

주말이 지나자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6월 27일부터 3일간 열린 세계과학기자연맹(WFSJ)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도하를 찾은 것이다. WFSJ 컨퍼런스가 진행된 곳은 도하 외곽에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의 스튜던트센터였다.

에듀케이션 시티 역시 '공사 중'이다.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지난 2008년 '카타르 국가비전 2030' 발표와 함께 에듀케이션 시티 건설이 시작됐고, 아직도 진행형이다. 현재 공식 건설 주체는 카타르재단으로 천연가스와 원유를 팔아 마련한 대규모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1995년 하마드 왕



▶ 도화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온통 사막이다. 사막의 흰 모래와 아라비아(페르시아) 겉프의 쪽빛 바닷물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 세계과학기자연맹 국제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과학자와 과학자들이 아랍 세계의 과학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 설립한 재단이다. 하마드 왕의 두 번째 부인인 모자 빈트 나세르 왕비가 재단 회장을 맡고 있다.

완성된 에듀케이션 시티의 예상 총면적은 약 1천500만㎡다.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면적의 4배가 넘는다. 카타르재단은 이곳을 과학과 교육, 예술,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대규모 융·복합 연구단지로 만드는 계획이다.

WFSJ 컨퍼런스에 참석한 무하마드 파트히 사우드 카타르 재단 이사장은 “(우리 재단과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 국가 경제를 탄소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겠다”며 “(서구 과학혁명을 이끌었던) 9~13세기 아랍 과학을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 출신으로 1999년 아랍계 첫 노벨화학상 수상자가 된 아흐메드 즈웨일 미국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는 WFSJ 컨퍼런스에서 “과학의 어떤 분야에서 (아랍국가나 아랍인이) 최고가 되는 게 곧 지하드(성전)다”라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아랍말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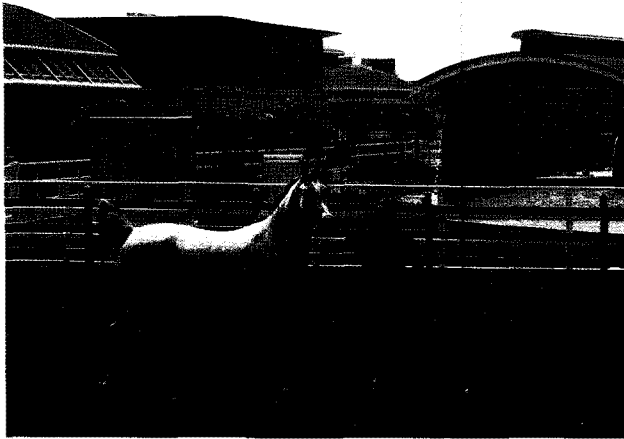
말을 타고 100km 이상을 달리는 지구력승마대회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는 품종 중 하나는 아랍말이다. 골격이 단단하고 체력 좋기로 유명한 아랍말은 평균 시속 50km로 달린다. 지금의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사막지역에서 옛날 유목생활을 하던 베두인족은 아랍말을 ‘날개 없이도 날 수

있는 말’이라고 불렀다.

에듀케이션 시티에는 아랍말을 길러 연구하고 훈련시키는 기관인 ‘알 샤카브’가 있다. 1992년 설립된 알 샤카브는 우수한 혈통의 아랍말을 데려다 인공수정으로 번식시켜 세계로 수출한다. 알 샤카브 홍보담당 실라 도만 씨는 “다른 혈통의 말과 교배해 더 나은 품종으로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며 “시육부터 연구, 훈련, 치료, 승마경기 주최까지 하는 말 전문기관은 이곳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알 샤카브를 비롯한 유명 연구기관들이 속속 에듀케이션 시티에 들어서고 있다. 웨일코넬의대와 텍사스A&M대, 카네기멜론대, 조지타운대, 파리경영대, 런던대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도 여기에 캠퍼스를 지었다. 아직 공사 중인 코넬의대에선 이 나라 특산물인 대추야자 유전자를 분석하고 현지인에게 많은 당뇨병을 연구한다. 2012년 문을 열 예정인 시드라의학연구센터에는 400여 병상 규모의 병원도 들어선다. 이곳에서 총 4천500여 명의 임상 의사와 연구원들이 일할 계획이다.

에듀케이션 시티에 들어선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대부분 카타르재단의 멤버이다. 현재 카타르재단 멤버는 70여 개에 이른다. 이들을 중심으로 카타르재단은 의료와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9개국 373개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1억1천380만 달러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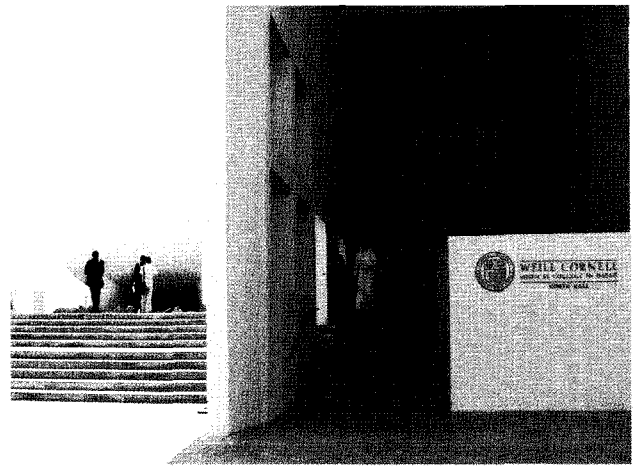
▶▶ 송마대회에서 맹활약하는 이립말을 전문적으로 키우고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 '알 사카브'.

카타르재단은 또 이곳에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톨스로이스와 윌리엄스포물러원,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일렉트릭, 세블론 같은 유명 다국적기업도 유치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성과를 산업과 직접 연계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중동의 러브콜

카타르의 인구수는 고무줄이다.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 늘었다 줄었다 한다. 현지 여행가이드는 약 170만 명이라 하고, 미국 중앙정보국은 약 8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말하는 이에 따라 고무줄이다. 최대 12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4%가 카타르에 있다고 하니 부자나라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풍부한 오일머니 덕분에 현지 카타르인들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집을 지을 때도, 차를 살 때도 나라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 카타르가 과학과 교육에 집중 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요즘 카타르 지도층 사이에선 천연자원과 오일머니만으로는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WFSJ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난 칼리드 알 수바이 카타르재단 연구조정디렉터도 "카타르의 지속가능한 국가 경영을 위해선 (자원보다) 교육과 과학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 전체로 보면 카타르는 2006년부터 국내총생산의 2.8%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에 투자



▶▶ 도하 외곽 에듀케이션 시티에 들어와 있는 미국 웨일코넬의대. 카타르 현지인에게 많이 생기는 당뇨병을 연구하고 있다.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35억 달러(약 4조2천억 원)에 이른다.

이 나라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 알 수바이 연구조정디렉터는 "천문학이나 항공우주공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한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 회사(위성전문기업 세트랙아이)가 얼마 전 두바이에 인공위성을 수출한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중동 국가인 카타르와의 협력도 기대한다는 바람이다. 그는 또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한국과는 기술 협력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우리가 한국에서 지름 20cm짜리 천체망원경을 구입해 사막에 지은 천문학연구소에 설치했다"고도 덧붙였다. 카타르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연구와 교육, 의료 분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의 변신에 우리가 긴장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 얼마만큼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얼마나 빨리 발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연구자들을 주로 접해온 우리 과학계에 중동은 아직 낯선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그들의 러브콜이 반갑다.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으며 자란 우리나라 젊은 과학도들이 망설이지 말고 아랍 과학계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ST**